

Q.

자녀가 같은 그림책을
반복해서 계속 읽어 달라고
할 때 점점 지칩니다.
이럴 때 어떻게 해야
할까요?

answer >>

**같은 책을 또 읽어 달라고 할 때,
자녀는 '자기 확신'을
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**

영유아에게 반복 읽기는 이미 아는 이야기를 다시
확인하며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쌓는 과정입니다.
자녀는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매번 다른 장면,
다른 감각, 다른 감정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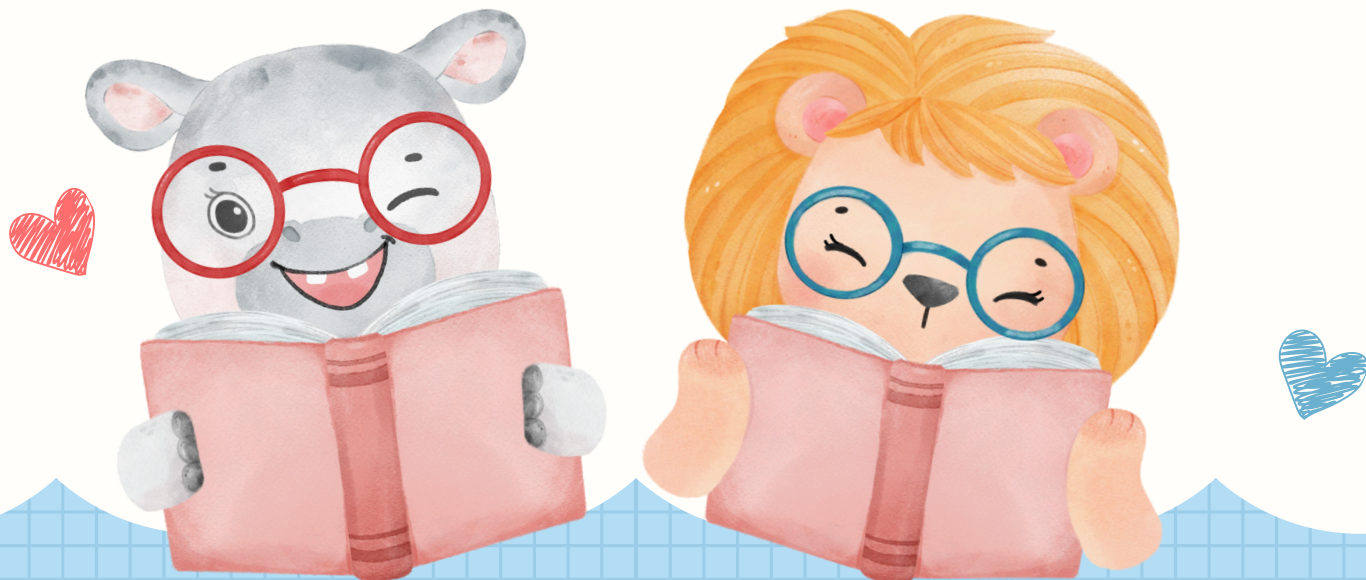
그림책을 읽어 줄 때 매번 새롭게 읽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

부모가 더 재미있게, 더 새롭게 읽어야 한다는 부담은
내려놓아도 됩니다. 영유아는 같은 책, 같은 이야기를
반복해서 읽는 동안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
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



자녀의 "또 읽어 줘"는 '함께'를 원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

자녀의 반복 요청은 내용을 더 알고 싶어서라기
보다 부모와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
수 있습니다. 책을 매개로 함께 있는 시간을 확인하고
있는 것입니다.



언제까지 읽어야 할지 고민될 땐, 자녀의 몰입이 기준입니다.

책 읽기의 끝은 시간이나 횟수가 아니라
자녀의 몰입이 채워지는 순간입니다.

영유아는 충분해지면 스스로 책을 내려놓거나 관심을
다른 곳으로 옮기며 자연스럽게 신호를 보냅니다.



부모가 지루하고 피곤한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

반복되는 책 읽기 속에서 목이 아프고
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.

이럴 때 완벽하게 읽어 주려 애쓰기보다 속삭이듯
읽거나, 그림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
영유아에게는 ‘함께 있는 느낌’이 가장 중요합니다.



자녀에게 남는 건 '몇 번 읽었는지'가 아니라 '어떻게 함께 있었는지'입니다.

반복되는 그림책 시간은 학습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한 관계의 기억으로 영유아 안에 남습니다.
그 기억이 언어와 정서, 그리고 배움의 바탕이 됩니다.

